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활기도는 민생경제, 도약하는 중소기업 -

2025. 1. 8.

순 서

I. 現 정부 전반기 정책 평가	1
II. 정책 추진여건 및 방향	2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4
① 민생경제의 활력이 살아납니다.	5
② 혁신과 스케일업으로 성장합니다.	11
③ 선제적 미래대응으로 도약을 준비합니다.	17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...	22

I. 現 정부 전반기 정책 평가

◇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·고금리 연쇄적 충격에 총력대응

-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해 **사회안전망 대폭 강화**
 - * 373만 소상공인에 최단기간(2일) 내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23조원 지급('22.5)
 - **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('23.1, 금융위 협업)
- **고금리·고물가·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**
 - * 소상공인 종합대책('24.7)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 마련, 7.1만명·1.6조원 부담 완화
 - ** 선량한 소상공인 면책('24.3, 6개 법령 개정), 노쇼·악성리뷰 등 생업피해 구제('24.12)
- **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 활성화 촉진**
 - *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지속 확대('22, 3.5조원 → '23, 4조원 → '24, 5조원)
 - ** 소비 캠페인이자 판로 플랫폼인 동행축제를 통해 내수진작(8차례 10조원 매출)

◇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도약 기반 마련

- **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 제시**
 - * 글로벌화 대책 마련('24.5), K-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('24.7)
 - ** 외교부와 협업을 통한 재외공관 협의체 신설('24.4, 17개국·25개 공관)
- **AX·DX, ESG 등 미래 산업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**
 - * 「스마트제조혁신법」 제정('23.1), 스마트제조 생태계 고도화 방안 수립('24.10)
 - ** EU CBAM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'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' 발표('24.5)
- **글로벌 기술경쟁의 핵심 원동력으로 신산업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**
 - * 민·관 합동으로 5년간 2조원을 투입하는 '초격차 1,000+ 프로젝트' 마련('22.10)
 - ** AI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전략 수립('24.7),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(2조원 규모)

❖ 내수침체 지속에 대한 민생경제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신산업 출현 가속화, 신통상 질서 변화, 인구구조 급변 등 새로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

II. 정책 추진여건 및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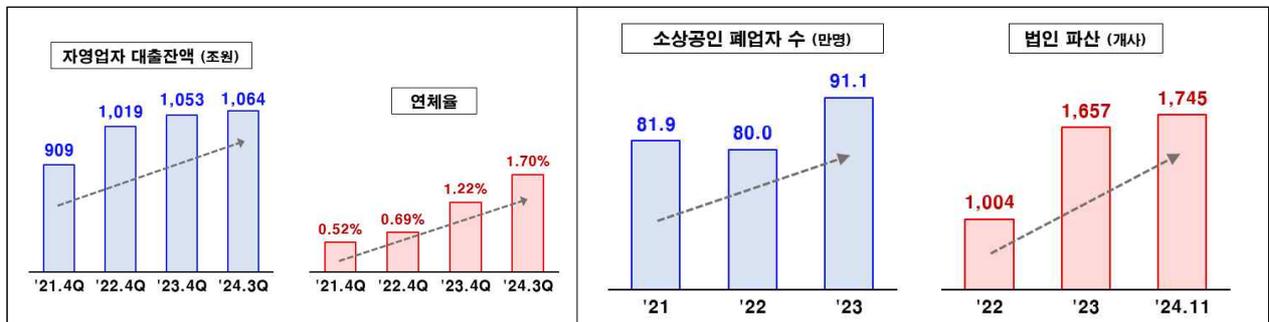
1 정책 환경

◇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지속 우려

- **(내수)** 물가는 안정 국면이나 그간 누적된 물가·금리 상승 여파,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
 - 에너지, 인건비 등 추가 고정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 가중
 - * 전기료(43%), 식료품·음료비(28%), 근로자 임금(18%) 등이 '19년 대비 '24년 급증

< 자영업자 대출현황(한은) >

< 소상공인 폐업(국세청) 및 법인 파산(법원) >



- 고금리 여파, 불확실성 증가로 창업벤처 생태계 성장세 위축 우려

* 연간 창업기업(만개, 중기부) : ('21) 141.7 → ('22) 131.7 → ('23) 123.8 → ('24.상) 6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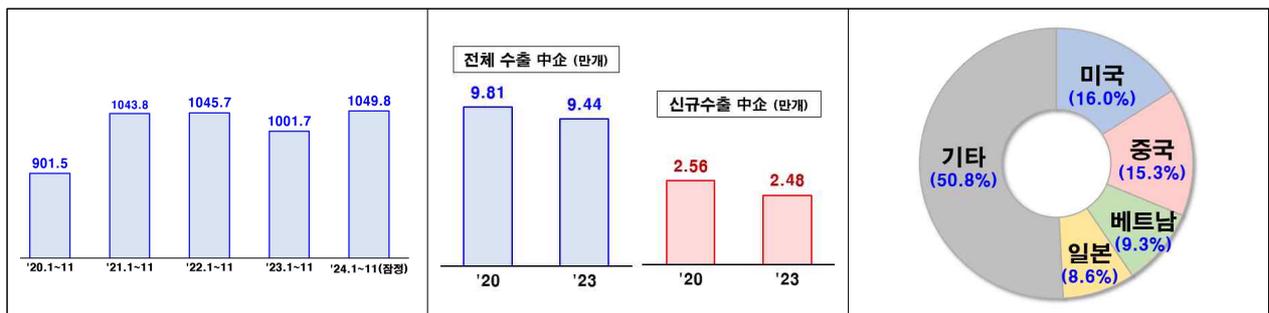
** 벤처투자 실적(조원, 중기부) : ('21) 15.9 → ('22) 12.5 → ('23) 10.9 → ('24.1~3Q) 8.6

- **(글로벌)** 중소기업 수출은 선전했으나 고회율,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, 중국과 경쟁 심화 등으로 부정적 대외여건 확대 전망

< 中企 수출액 (억불) >

< 수출中企 수 >

< 국가별 中企 수출비중 >



◇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성패를 좌우

- **(신산업 전환)** AI·디지털·기후테크 등의 신산업 경쟁이 치열하나,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관련 기술 도입·활용은 미흡

* 디지털 역량 ('23, OECD) : 32개국 중 대기업(15위), 중기업(18위), 소기업(21위)

** 대기업 대비 中企 디지털 지수 ('24, 중기부) : 전략 25%, 투자 28%, 활용 24%

- 우리나라는 탄소多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국가로 ESG 대응 불리

* GDP내 제조업 비중 (% , 산업연) : 한국 28.4, 미국 11.0, 프랑스 10.4, 영국 9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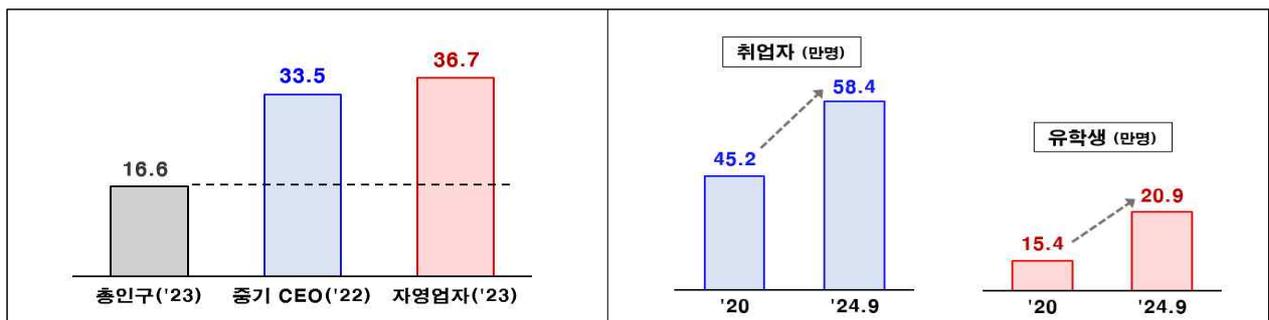
- **(미래대응)** '25년부터 총인구 감소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며,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CEO 고령화에 대한 애로 증가 전망

- 온라인 플랫폼 위주 유통환경내 디지털 전환 및 독과점 양면성 부각

* 플랫폼 활용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 ('23, 만원, 신한카드) : (활용시) 100 (미활용시) 65

< 60세 이상 고령 비중 (% , 통계청) >

< 외국인 취업자/유학생 (법무부·교육부) >



2 정책 방향

① (민생경제 활력회복) 당면한 경영충격 완화 및 내수촉진

* 소상공인 내수·판로 확대, 지역상권·전통시장 자생력 제고, 온라인플랫폼 상생 등

② (혁신과 스케일업)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, 디지털 전환 등으로 스케일업

* AI·바이오 등 미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, 中企→중견 성장촉진 정책 등

③ (선제적 미래대응) 환경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미래도약 준비

*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인력유입·기업승계, ESG 규범내 기회 창출, AI기반 제조혁신 등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비전

활기도는 민생경제, 도약하는 중소기업



목표

핵심 과제

I

**민생경제
활력회복**

1 당면한 경영충격 완화

2 내수촉진 마중물 공급

3 영업안전망 강화

Ⅱ

**혁신과
스케일업**

1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

2 디지털로 도약하는 혁신 소상공인

3 생산성이 배가되는 중소기업

Ⅲ

**선제적
미래대응**

1 환경 변화 대비 전략적 글로벌화

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

3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

1 민생경제의 활력이 살아납니다.

1 당면한 3대 경영충격 완화

◇ [금융충격]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, 신속 채무조정

○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의 지원 강화

- '25년 전환보증율 약 3.2조원 공급(지신보 2.5조, 기보 0.7조), 상환연장 인정요건 확대 등 ①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 지원 확대 + 3종 세트 성실 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 ②소망충전 프로젝트 실시

< 정책자금 주요 내용 >

구분		지원확대	구분	지원내용	
금융 3종 세트	상환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중채무(대출 금융기관 3→2개) - 매출감소 (전기 대비 10%이상→전기 대비 감소) 	⇒ 성실상환	추가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원금 성실상환(3개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소진공채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포함 → 지역신보 최대 3천만원 추가
	전환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신보 전환보증 확대 (총 5→8조원, '25, 2.5조원) ▪ 기보 전환보증 신설 (총 2조원, '25, 약 0.7조원) 			부담완화
	대환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책보증부대출(햇살론 등) 대상 추가 ▪ 거치기간(2년) 선택권 부여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환대출 신청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	

- '25년 새출발기금 10조원^{목표}을 통한 취약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은행권 상생금융*(0.6~0.7조원)을 통해 연간 25만명 지원(금융위 협업)

* 중기부 지원: ①소상공인 성장up 보증부 대출(은행권 연 1,000억원 지역신보 출연 → 최대 1억원 위탁보증), ②폐업자 저금리·장기분할상환

○ 채무조정과 병행하여,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총 16조원* 자금 공급

- *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: 3.8조원(상생성장지원자금 1,000억원 신설)
-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: 12.2조원(경영성과에 따른 추가 자금지원 1,000억원 신설)

○ 소상공인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화

- 전국 30개 「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」를 설치하여 회생법원과 연계한 채무조정* 지원(소진공 지역센터내에 설치)

* 소상공인 채무자의 업종, 소득·부채 규모, 변제 희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 추천 및 컨설팅 : ①사적채무는 신복위, ②파산·회생은 법원신청

- 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파산·회생 절차 신속 진행 (現 소요기간 12개월)

* 법원의 개인(비사업자 포함) 회생/파산 건수(만건) : ('22) 4.1/9.0 → ('23) 4.1/12.1



-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빠른 유동성 지원을 위한 구조개선자금 대폭 증액('24, 1,193억원 → '25, 2,001억원 68% 증액)

- (선제적 구조개선) 성장가능성 있는 일시 애로기업을 은행 등이 추천하고, 금융권과 공동으로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('25, 1,516억원)

- * ①선별강화 : 성장잠재력, 정상화가능성 등 18개 항목 사전검토 평가지표 신설
 ②모니터링 강화 : 자금지원시 약속한 자구안 이행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
 ③연계지원 확대 : 은행권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신속금융 기업은 중진공 만기연장

- (사후 구조개선) 위기가 나타나 어려움을 겪는 회생·워크아웃 중소기업에 재도약 기회 부여를 위한 자금지원 강화 (3년 10억원 이내)

* (대상) 정책금융기관 지정 부실징후기업, 워크아웃 이행 중 기업, 회생 계획 이행 중 기업 등

◇ [환율충격] 중소기업의 고환율 피해 최소화 지원

- 고환율 피해 대비 수출·입기업에게 정책금융 등 적극 연계지원

구분	긴급경영안정 자금·보증	수출기업 유동성 공급	수출바우처
중진공	2,500억원	4,000억원	1,275억원
기보	3,000억원	5,000억원	-

- 원·부자재 수입기업이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먼저 사용하고, 나중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원자재 대여 우대 보증상품 지원

* 지급보증서 보증비율(現 85%→95%) 및 보증료(現 0.5%~3.0%→0.3%p 감면)

- 수·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하도록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 기준을 제시하고 컨설팅 제공

- 고회환율이 지속될 경우, 피해 수입기업 대상(매출대비 수입 20% 이상) 2,000억원의 우대 자금지원 검토(부처협의 후 확정)

< (예시) 환율 급등 피해기업 전용 유동성 프로그램 >

구분	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	기보 긴급경영안정보증
지원규모	1,000억원	1,000억원
우대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애로 규모 요건(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) 적용 제외 • 부채비율 초과 등 제한요건 적용 예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증비율 상향 (90 → 95%) • 보증료 △0.3%p 인하

-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 수출보험,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·보증 가입비 지원 (한도 1천만원)
-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고회환율 피해 중소기업 애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대규모 정책 설명회 및 애로 상담 개최
- * 전국단위 대규모 설명회 개최 : 서울(1.15)을 시작으로 경기 등 지속 개최

◇ [투자회복] 모태펀드 신속지원, 투자 걸림돌 제거

-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*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, 신규 벤처펀드 1.9조원 조성
- * '25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규모 : 본예산 0.5조원 + 회수재원 0.5조원
- 민간자금 유입촉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규제 완화
- 벤처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완화

< 벤처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 규제 완화 >

구분	현행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자의무 대상 • 해외법인 • 펀드별 투자의무 • 연도별 투자의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, 벤처기업 • 불인정 • 20% • 매년 1건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중소기업 • 국외창업기업 인정 • 폐지 ※ 총자산 투자의무(40%) 유지 • 3년마다 1건 이상

- IPO 시장 위축으로 세컨더리 회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모태자펀드의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 ('25~'26, 최대 20%)

2

내수촉진 마중물 공급

◇ 온누리상품권 5.5조원 발행으로 내수 온기 확산

-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.5조원 발행하고, 설 성수기(1.10~2.10) 디지털 상품권 특별 할인(15%) 및 환급* 행사(15%) 시행
 - * 고객별 누적 결제금액의 15%(4회, 회당 최대 2만원)를 행사 종료 후 캐시백 형태로 환급
- 카드·모바일 상품권 앱 일원화, 결제 잔액 부족 시 자동으로 충전하여 결제되는 기능 추가 등 편의성 제고
-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550곳*으로 확대
 - * 골목형 상점가(개) : ('23) 182 → ('24.12) 353 → ('25.上) 450 → ('25.下) 550

◇ 전국민 소비촉진 축제 주기적 전개

- 대표 소비축제인 동행축제 상반기 2회 개최(총 4회)

< '25년 동행축제 회차별 컨셉 >



- 온라인 채널, 공영홈쇼핑 등에서 특가 할인전을 진행하고, 대형 유통회사와 협업하여 동행축제 기획상품을 제작 판매
 - * 백화점·아울렛(상생기획전 등), 편의점(동행도시락, 동행음료 제작 및 판매)
- 중기부(지방청), 한경협(회원사) 등을 주축으로 '송년·신년회 모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하기' 캠페인 개최('25.1)

◇ 공공조달시장의 실질 매출 증대 효과 극대화

-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·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것을 배제(「판로지원법」 개정)
 - * 판로지원법 제2조 정의 신설 :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.
- 공공기관 공공조달 실적에 대한 평가강화 등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 강화
 - * 중기제품 구매실적(조원) : ('19) 105 → ('21) 119 → ('23) 127(854개 기관)

◇ 검증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 제품의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

-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 입점을 2배 확대하고, 수수료율을 민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인하
 - * (중기제품 면세점) 3개소 → 6개소, (입점 기업) 900개사 → 1,800개사
(수수료) 민간 50% vs. 전용면세점 23% (영세소상공인·초기창업기업 10%대 인하)
-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을 30% 이상 편성하고 모바일 기반 라이브커머스·OTT를 확대하여 공영홈쇼핑 매출 9천억원 달성
 - * 모바일 기반 방송판매 (회) : ('24) 2,500 (추정) → ('25) 3,000

3 영업안전망 강화

◇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도입

- (폐업정리) 점포 철거비를 확대(250 → 400만원), 폐업 후 잔여 대출금에 대한 저금리·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* 도입
 - * 최장 30년까지 지원(잔액별·담보별로 상이), 잔액 1억원 이하 대출은 3% 수준
- (취업지원) ①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과 ②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당(최대 945만원)도 지급
 - * 희망리턴패키지(95만원) + 취업지원수당(최대 6개월, 월 50~110만원) + 취업성공수당(190만원)
- (재창업)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희망시, 재창업 전담 PM을 매칭하여 업종전환 컨설팅과 재창업 사업화 지원(최대 2천만원)

「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」

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		재창업 프로그램(중기부)	
<p>희망리턴패키지 (중기부)</p> <p>마인드셋 사전교육 (1개월) * 95만원 수당 지급(1회)</p>	<p>국민취업지원제도 (고용부)</p> <p>심층교육(직업훈련) (최대 6개월) * 월 50~110만원 수당 지급, (연계수당 20만원(중기부) 포함)</p>	<p>경영진단</p> <p>▪ 전문가 사업장 방문조사 +빅데이터 진단</p>	<p>관리체계</p> <p>▪ 재창업 전담 PM 1:1 매칭* + 경영·회계집행 등 멘토링(최대 7회) * 실패원인 분석·상담, 상권분석 등 컨설팅</p>
+		<p>교육</p> <p>▪ 기초창업 준비·경영역량 함양 → 심화업종·전문기술 전문가 교육</p>	<p>사업화자금</p> <p>▪ 최대 2,000만원 지원(최대 7개월)</p>
<p>취업 성공시(중기부·고용부)</p> <p>12개월 근속시 최대 190만원</p>			

◇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

- 공제금 지급금리 및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* 추진하고,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공제가입 지원 (예금·대출금리 우대 등)
 - * 사업소득별 한도(만원 '24년 대비) : (~4천만) 500→600 (4~6천만) 300→400→500 (6천만~1억) 300→400
- 미환급 공제금에 대해 소멸시효(3년) 연장, 지속 안내 등 노란우산 공제 미환급 지급 개선방안 마련('25.上)

◇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

- 배달·택배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(매출액 1.04 억원 이하)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 지원
 - * '22 比 '23년 연간 배달·택배비가 소상공인당 약 60만원 증가, 절반인 30만원 지원
- 소상공인의 매출규모에 따라 신용·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 (0.05~0.10%p)하여 年 3,000억원 경영부담 완화 (금융위 협업)

◇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

- 주요 배달플랫폼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조사하여 개선(공정위 협업)
 - * (중기부) 전문가 검토 및 입점업체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불공정 약관 발굴·검토 → (공정위) 불공정 약관 심사 절차를 통해 개선
- 제조업 수·위탁 중심의 상생협력 틀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상생으로 범위를 확장
 - 플랫폼 수수료 구조, 불공정 행위 및 이용 체감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후 발표
 -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오픈마켓에서 배달플랫폼(배민, 쿠팡이츠)까지 확대하고,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편입 검토(동반위)

② 혁신과 스케일업으로 성장합니다.

1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

◇ 첨단 스타트업 1,000개 집중 육성 (초격차, TIPS 등)

- 10대 초격차 분야*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, 상장까지 레벨업 전략적 지원

* ①시스템 반도체, ②바이오·헬스, ③미래 모빌리티, ④친환경·에너지, ⑤로봇, ⑥빅데이터·AI, ⑦사이버보안·네트워크, ⑧우주항공·해양, ⑨차세대원전, ⑩양자

< 딥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>

구분	발굴	사업화 지원	기업상장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딥테크 스타트업 중 고용·매출·투자 분야 상위 10% 스타트업 발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글로벌 대기업 등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 → 판로확보, 기술구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소·벤처기업 전문 증권사 Pool 구축 ■ IPO 대비 현장실사 간소화, 기술 자문 등

- AI 펍리스,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*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,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'특화 프로그램**' 신설

* [기술] sLLM, AI 펍리스 [산업] 제조, 헬스케어, 문화·콘텐츠

** 대기업-AI 스타트업 협업 챌린지, 글로벌 AI 펀드 조성, 전문인력 창업지원 등

◇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

-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Pool을 구축하고,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·협력을 지원하는 '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' 신설 ('25, 70억원)

* 참여기업 : ('24) 현대차 (시범) → ('25) 8개 대기업 (확대)

- 대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투자까지 집행 시 모태펀드가 1:1 매칭투자 (20억원 한도)하는 '밸류업 펀드' 신설 ('25, 100억원)

<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구조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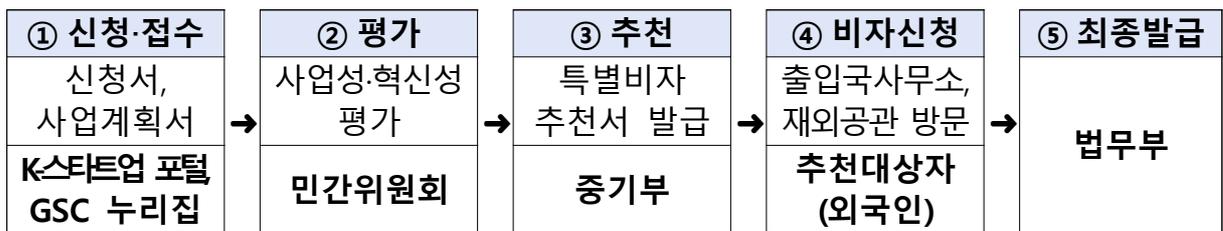


◇ 창업생태계 글로벌화

- (Inbound)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형식적 요건*보다 사업성·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'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'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급 요건 개선

* ①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, ②지식재산권 보유출원, 투자유치, ③정부 창업사업 선정

<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절차 >



-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연계*를 지원하는 외국인 창업사업 추진 ('25, 15억원)
 - *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, 통·번역 서비스,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, 네트워킹 등
- 국내외 창업기업, 투자자, 지원기관들이 모여 협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'글로벌 창업허브' 구축 (서울·부산, '25~'26)
 - * (서울 흥대) 아시아 최고 딥테크 소사이어티 구현, 딥테크 벤처·스타트업 집중 육성 (부산 북항) 대·중견기업 연계 개방형 혁신, 수도권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
- (Outbound) 글로벌 창업·벤처 거점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
 - 한인 창업이 활발한 실리콘밸리에 '가칭 K-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'을 구축하여 글로벌 진출 거점화
 - * 한국벤처투자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중진공, 창진원, 신기보, 민간VC가 집적된 허브로 고도화
 - 미주, 아시아, 유럽 권역별로 한인 VC, 스타트업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교류의 장 마련 (한국판 디아스포라)
 - * 美 '82 Startup Summit('18년 설립) 등 한인 네트워크를 전세계로 확장·구축
 -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('25.10)의 한국 개최와 연계하여 글로벌 VC 서밋 등 벤처투자 협력행사 진행 추진

◇ 혁신기업을 뒷받침하는 벤처 투자

- 모태펀드 출자, 초기창업, 대·중견기업 및 금융권 등 투자유인 확대로 총 13조원 규모*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조성
 - * 국내 벤처투자 규모(조원) : ('22) 12.5 → ('23) 10.9 → ('24^o) 12.3 → ('25^e) 13.3
 - 초기창업 기업 투자 위축*에 대응하여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출자를 25% 확대('25, 1,000억원)하고, 초기투자 인센티브 부여**
 - *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(조원) : ('23.1~3Q) 2.1 → ('24.1~3Q) 1.6 (△25%)
 - ** 초기창업 투자 의무 제안 시 우대, 업력 5년 이내 기업 투자 시 관리보수 미삭감 등
 - 2조원 규모 스타트업코리아 펀드*를 조성하여 딥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고, 별도 트랙을 통해 뷰티, 바이오 등 전략분야 집중 육성
 - * 모태펀드와 대·중견기업, 금융권 등이 공동으로 4년간('24~'27년) 2조원 조성
- 글로벌 펀드를 13조원까지 확대 조성 ('24, 12 → '25, 13조원^{누적})
 - 글로벌 자본의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에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펀드를 설립하여 2억달러 규모 자본 유치 ('25~'27)
 - * 싱가포르 법인 K-VCC 설립 (~'25), 싱가포르 인가 획득 ('26.上)

2 디지털로 도약하는 혁신 소상공인

◇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

-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
 - (소상인) ① 민간 발굴, ② 온라인 플랫폼社 상생 프로그램 + 정부 지원으로 성장 유도 ('25, 3,000개)

〈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〉	
1단계 (3,000개사)	· (정부) 1:1 컨설팅 · (플랫폼) 온라인 기획전
2단계 (300개사)	· (정부) 바우처 지원 · (플랫폼) 팝업 스토어
3단계 (30개사)	· (정부) 수출 바우처 · (플랫폼) 시장 분석
 - (소공인) 스마트제조 지원사업* 참여기업 (1,800개)을 대상으로 우수 소공인을 선별하여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연계 ('25, 200개)
 - * 소공인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H/W·S/W 임차료 등 기초단계의 스마트화 지원

- 연령·기술 등 수준별로 차별화된 디지털화 지원 (1만개사)
 - 가격부담이 큰 서빙로봇 등은 임대방식으로 지원하고, 장애인·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가능한 키오스크 보급 확산 ('25, 5,000개)
 - * 간이과세자, 1인자영업자, 장애인 사업주에 대해 국비지원 비율 우대 (70→80%)
 - 매출관리, 마케팅, 데이터 분석·제공 등이 가능한 서비스 구독형 SW 보급으로 경영관리 효율화 지원 ('25, 5,000개)

◇ 온라인 판로를 활용한 수출 소상공인 육성

-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 마련
 -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, 제품개발, 수출 등을 패키지화하여 밀착 지원하는 '가칭아이콘(아마존×라이콘) 프로젝트' 신설 ('25, 60개)
 - * 아마존 내 아이콘 브랜드과 별도 운영 및 소상공인 중심 국제행사 추진
 - 올리브영 인프라를 활용, 브랜드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, 체험형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'K-슈퍼루키 워드영' 확대 ('25, 100개)
 - 일본·동남아 대표 SNS인 네이버 'LINE'을 통해 네이버·카카오 스토어 입점 소상공인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('25, 300명)
 - * '기초 → 심화·실전 → 글로벌 진출'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 셀러 양성
- 글로벌 플랫폼 활용 전문성을 가진 전문셀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 소상공인*의 플랫폼 입점·판매·배송 소과정을 지원
 - * (例) 유망 소상공인(1,000개사) 선정 후 수출가능성, 판매실적 등을 고려 추천

◇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책 고도화

- 소상공인 등 우리부 정책 대상 DB 구축,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·공급
 - * 소상공인 365 중심 빅데이터 축척 → 700만개 유효사업자 → 속보성 지수 개발
- 상권·업종별 과밀정도를 보여주는 '과밀창업지수'를 개발하고, 소상공인 365, 창업·재기 컨설팅 등을 통해 안내
 - * 상권별·업종별 과밀창업지수 게재 → 창업 컨설팅시 과밀지수 의무적 활용

3

생산성이 배가되는 강한 중소기업

◇ AX·DX를 통한 제조혁신 가속화

- (DX)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, 지능화, 자율화 등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진 ('25, 약 1,700개, 2,200억원)

< DX 기반 제조혁신 지원 내용 >

구분	자동화	지능화	자율화
주요내용	공정자동화 및 제조로봇 도입 지원	제조데이터 기반 고도화 스마트공장	제조AI·디지털트윈이 적용된 자율형공장
'25년 목표	675개(330억원)	1,000개(1,750억원)	40개(120억원)

- (AX) AI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극대화
 -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을 위한 「가칭중소기업 AI 확산법*」 및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「가칭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」 제정
 - * 분야별 '중소 AI 활용·확산 방안' 및 '맞춤형 제조AI 도입 방안' 별도 수립
 - 공장·기업 간 디지털 연결(공급망 관리, 탄소감축)을 위해 제조현장 핵심장비 500개를 대상으로 제조데이터 표준 모델 개발 ('25, 115개)
 - '제조 AI 센터' 구축('25, 3개)으로 제조현장의 기계·설비 이상 감지·예측·제어, 제품설계 최적화 등 AI 솔루션 보급 확대
 - * ('24) 경기권 1개 → ('25)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신규 지정 예정

◇ 혁신을 촉진하는 R&D 3종 Track

- 신규 R&D의 50% 이상을 국가전략기술분야*에 집중 투입
 - * 12개 분야(과기부) : ▲반도체·디스플레이, ▲이차전지, ▲인공지능, ▲첨단로봇·제조 등
- 해외 우수 연구기관*의 보유기술을 활용, 중소기업 상용화 R&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'글로벌 협력 R&D' 추진 ('25, 49개 신규과제)
 - * ('24) MIT, Purdue 등 → ('25) 파스퇴르研, 슈타인바이스, 프라운호퍼, 인도공과대 등
- 과학기술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R&D 결과물의 시장화 촉진 (과기정통부 협업)

◇ 유망 중소기업의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본격 시행

- 우수 中企 100개사를 선정, 디렉팅·오픈바우처·네트워킹 및 연계 지원(자금·수출·R&D 등)을 통해 신사업·신시장 진출과 스케일업 지원

< 점프업 프로그램 지원체계 >



- 신사업 진출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* 등을 집중 지원

* 사업전환자금 (최대 100억), 기보 특례보증 (최대 200억), 수출 자금·보증 우대 등

◇ 성장사다리형 지원정책 강화

- 성장사다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최근 고물가,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업종별 범위기준(매출) 마련

* 현행기준 : (소기업) 업종별로 10~120억원 / (중기업) 업종별로 400~1,500억원

- 정책금융이 소상공인 → 중소 →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 ('25, 7,800억원)

<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 >

단계	소상공인→소기업 (마일스톤 자금)	소기업→중기업 (성장사다리 보증)	중기업→중견기업 (신사업 진출·스케일업)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지원(1,700억원) ■ 소기업 성장 시 0.4% 금리인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매출·고용 성장 시 기존 기술보증액의 50% 추가지원 (2,000억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미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사업전환 및 스케일업 지원 (4,100억원)

- AI·차세대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에 '25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신규 유동성 공급량의 60% 수준인 5.7조원을 집중 공급

③ 선제적 미래대응으로 도약을 준비합니다.

1 환경 변화 대비 전략적 글로벌화

◇ 수출 품목 · 국가의 다변화

- 신규 수출 분야를 확대하고 수출 주력품목의 시장개척을 촉진
 - **(서비스·기술 수출)** 低고정비, 高부가가치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을 지원하는 전용 바우처 신설 ('25, 140억원)
 -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·거래를 지원하는 「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('24, 기보 구축)」 플랫폼 본격 운영
 - * ('24) 베트남과 6건 기술거래 MOU 성사 → ('25) 인니,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확대
 - **(한류활용 수출)** K-뷰티·푸드 등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
 - K-뷰티 : K-뷰티 펀드 및 네트워크론('25, 200억원) 신설, 국제 박람회 및 규제 설명회(식약처 협업) 개최 등 K-뷰티 글로벌화 지원 강화
 - K-푸드 : 수출 유망기업 등에 민관협력형 스마트공장('25, 70개)을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(삼성·농협, 농식품부 협업)
 - **(現 주력품목)** 美·中 등 일부국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
 - 효율적인 시장변화 파악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위해 수출 주력 품목별 협의체 구성, 수출 중소기업 경기실사지수(BSI) 등 추진

<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(안) >

구분	① 서비스 · 기술 수출	② 한류 전략품목	③ 주력품목 수출국 다변화
분야	ICT 서비스, SW, 바이오 등	K-뷰티·푸드 등 한류 소비재 산업	수출국가 편중된 現 주력산업
전략	서비스 수출 분야 특화지원	한류 활용 극대화	신시장 정보제공 및 컨설팅 품목별 협의체 구성

◇ 해외 수출규제에 맞춤형 대응 강화

- **(ESG 규제)** 개별기업 단위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·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 유도 (중진공·동반위 60억원 + 상생협력기금 활용)
 - 정부·공공기관은 ESG 수준진단, 컨설팅, 정책자금 (1.5조원) 등 지원
 - * Net-Zero 유망기업, 기후환경보증, ESG 경영기업 보증 등
 - 중소기업의 자발적 탈탄소 역량 강화를 촉진 등을 위한 「가칭 中企 탄소중립 촉진법」 제정 추진
 - *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인증·거래 제도 및 탄소중립 지원 근거 마련
- **(해외인증)** 수요가 많고 국내 대응이 가능한 인증 대상으로 월별 간이심사 등 신속한 인증 획득 지원 확대
 - * 패스트트랙: ('24) 유럽 CE, 美 FCC 등 7개 → ('25) 8개 (美 FDA 화장품 추가)
 - 글로벌 할랄시장 ('25^e, 2.8조달러) 진출을 위해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中企 인증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
 - * 한국할랄인증원(KHA), 한국무슬림연합(KMF), 기계전기전자시험원(KTC) 등

◇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 강화

- **(자금)** 해외법인 설립*·운영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최초로 공급하고, 수출바우처의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강화**
 - * 해외 신설법인 수 (개, 수은): ('20) 1,335 → ('21) 1,274 → ('22) 1,406 → ('23) 1,648
 - ** 전략수립, 시장조사, 법인설립 등 해외진출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·지원
- **(거점)**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(GBC) 확대
 - * ('24.12) 인니 자카르타에 추가 개소, 14개국·21개소 운영 → ('25) 1개소 추가
- **(제도)** 국내 생산·고용 등 창출 기업*이 해외법인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창업·R&D 등 지원 (「중소기업진흥법」 개정)
 - * (例) 본사는 해외에 위치하지만, 한국경제에 고용·부가가치 등 기여하는 경우
- **(애로해소)** 민관 합동 '글로벌화 원팀 협의체*'와 재외공관 협의체 (17개국 25개소) 협업으로 현지 中企 애로 대응
 - * 민간 협·단체, 공공기관, 은행, 법무·회계법인 등 24개 기관으로 구성

2

지속가능한 지역경제

◇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지역상권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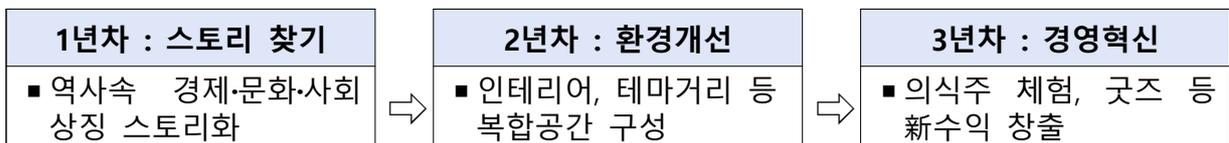
- 민간 주도 상권 리빌딩을 위해 3종 제도 신설(「지역상권법」 개정)
 - * ① 상권기획자 : 상권전략 기획·실행('25, 250명 → '27, 1000명)
 - ② 상권발전기금 : 지자체, 소상공인, 지역기업 등 공동 출연
 - ③ 상권투자조합 : 상권기획자 등이 운용하고 상권·소상공인에 투자 의무
- 기업가형 소상공인, 지역 중소·벤처기업 등 상권주체 유입·육성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입('25, 930억원 → '27, 5,000억원)



- 인구감소(관심)지역 활성화를 위해 상권 리모델링, 공동시설 구축 등 '지역상권 활력지원사업*' 신설, 상권 인정요건** 대폭 완화
 - * 기재·행안·국토·문체부 협업을 통해 2곳에 각 20억원 지원
 - **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 : 점포 100개 이상 → 50개 이상
-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기는 「글로벌상권 프로젝트」 2곳 지정 ('25, 5년간 최대 155억원)

◇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 육성

- 전국 58개 백년시장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매년 2~3곳 지정 ('25, 3년간 최대 50억원)



- 당일·새벽·묶음배송을 지원하는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여 디지털 시장 조성('25, 75곳, 65억원)

◇ 지역경제 선도기업 육성

-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·수출·R&D 등을 포괄지원하는 「레전드 50+」 2.0 추진
 - * 지원 프로젝트 : ('24) 21개 → ('25) 37개 (+16개 프로젝트)
지원 정책수단 : ('24) 6개 2,780억원 → ('25) 9개^{보증·인력·R&D 추가} 4,304억원
- 「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」를 통해 기업지원, 인프라 조성, 외국인력 공급 지원(30개 과제 선정, 150억원)
 - * (중기부) 실증 및 사업화자금 지원 + (행안부) 지방소멸대응기금(1조원) 연계 지원 + (농식품부) 인프라 확충 + (법무부) 외국인력 공급
-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R&D 사업 신설('25, 215.6억원)

◇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 인프라 강화

- 모태펀드와 지자체·지방은행·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, 3년간 ('25~'27)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
 - 비수도권 14개 시·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
 - *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('24, 1,000 → '25, 2,000억원), 민간투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, 초과수익이전 등 인센티브 제공
- 비수도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창업 패키지 신설·운영('25, 51억원)하여 지역 유망 스타트업 신속 성장 지원
 - * 지역 2곳(70개사) 대상으로 투자유치 단계를 고려하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
 - 지역 스타트업 현황을 고려하여 센터가 패키지별 비중 자율설정
- 기후테크 특화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조성('25~'27)
 - * ①클린테크(재생에너지, 분산화), ②카본테크(탄소포집), ③에코테크(자원순환), ④푸드테크(저탄소 식품생산·재배), ⑤지오테크(탄소관측, 위성정보서비스)
 - 지역의 기후 전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후테크 육성방안 마련

3

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

◇ 고령 경영자의 원활한 기업승계 촉진

- CEO 고령화,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M&A형 제3자 승계지원 제도 마련 (「가칭기업승계법」 제정)
 - * 중소기업 CEO연령 (22, 중소기업 실태조사) : 60~69세 23.7%, 70세 이상 3.9%
 - ** 10년간 예상손실 (21, 중기연) : 기업소멸(32.5만개), 일자리감소(307만명), 매출손실(794조원)
- 기업승계지원센터, M&A 중개기관 등을 통한 M&A 거래 매칭, 재정지원, 세제·특례 등 M&A 쏠과정을 촘촘하게 지원

◇ 외국인재 활용 중소기업 취업 촉진

- 20만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매칭 플랫폼 구축 (교육·법무부 협업)
 - * 유학생 구직 DB 구축 (24.10~12) : 기업 701개사, 유학생 4,023명 → '25년 1만명^{목표}



- 인도, 베트남 등 해외 우수 대학 전문인력 발굴, 수요기업 특화 직무교육 등 국내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매칭 지원
 - * 지원규모 : (베트남) 200명, (인도) 200명

◇ 장기근속 유도 및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

- 中企재직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'우대 저축공제' 가입자를 대폭 확대
 - * 재직자 매월 최대 50만원 적립 + 기업지원(납입액의 20%) + 은행 우대금리(1~2%p)
 - ** 가입 실적 (24년말 기준) : 중소기업 5천개사, 재직자 2.4만명 → '25년 5만명^{목표}
- 대기업·연구원 퇴직자의 창업 지원, 중장년과 청년 창업자간 협업* 유도
 - *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: (기존) 대표자 모두 청년 → (개선) '창업 경험 보유 중장년' 포함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

소상공인

1 영세 소상공인의 “경영부담은 낮추고 성장 가능성은 높이고”

금융 및 비용 지원	소상공인 금융 3중세트 ✓ 전환보증 약 3.2조원 공급 ✓ 상환기간(용자) 최대 5년 연장 ✓ 대환대출: 7% 이상 고금리 → 4.5% 금리로 전환 (2,000억원) 새출발자금 10조원	소상공인 정책자금 3.8조원 ✓ 일반경영안정자금 (1.2조원) ✓ 특별경영안정자금 (1.6조원) ✓ 상생성장지원자금 (1,000억원,신규) 지역신용보증 12.2조원	배달·택배비 지원(한시) 신규 ✓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 (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,소입종) ✓ 최대 30만원 지원
	스케일업 디지털 역량	브랜드소상공인(TOPS) 신규 ✓ 3천개사 (민간 플랫폼사 연계 선정) ✓ 최대 1천만원 (정부-민간 1:1매칭)	스마트기기/SW보급 ✓ 1만개사 ✓ 최대 500만원 지원(스마트기기) ✓ 최대 30만원 지원(SW)

2 위기 소상공인의 “새출발을 보다 확실하게, 보다 체계적으로”

폐업 점포 철거비 2025년 최대 400만원 (전용 3.3㎡당 20만원) 기존 최대 250만원 (전용 3.3㎡당 13만원)	취업 희망자	재취업
	준비 희망리턴패키지(중기부) ✓ 95만원	성공 취업성공수당 ✓ 12개월 근속 시, 최대 190만원
재창업 희망자	준비 전담PM 1:1 매칭 신규 ✓ 회당 30만원 (최대 10회)	재창업
	사업화 사업화 자금 ✓ 최대 2천만원 (1:1 자부담 매칭)	심층 멘토링 지원 ✓ 회당 30만원 (최대 6회)

3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“훈훈한 소비 온기가 돌도록”

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“훈훈한 소비 온기가 돌도록”

매출 신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✓ 5.0조원 (’24년) → 5.5조원 (’25년) ※ 디지털 4.2조원 (설 연휴 15% 할인 + 15% 환급)	상권 활성화 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 신규 ✓ 시범 2곳 선정, 1곳당 최대 20억원 백년 전통시장 신규 ✓ 2~3곳 선정, 1곳당 최대 50억원	내수 촉진 행사 대한민국 동행축제 ✓ 4회 개최(3,5,9,12월) ✓ 지역판매전(180회 이상) 전통시장·골목상권 이용 캠페인
--	---	--

중소 · 벤처 · 스타트업

1 혁신에 도전하는 K-벤처 · 스타트업, “스타트업코리아 실현”

<p>신산업 스타트업 육성</p>	<p>첨단 스타트업 1,000개사 육성 ✓ AI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 등 ✓ 사업화 최대 2억원</p>	<p>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신규 ✓ 50개사(대기업 협업 수요 반영) ✓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✓ 밸류업 펀드 신설</p>
<p>글로벌 No.1 창업 생태계</p>	<p>글로벌 창업허브 건립 ✓ 서울 홍대, 부산 북항 글로벌 진출 거점 조성 ✓ “K-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” 조성</p>	<p>스타트업코리아 특별 비자 ✓ 중기부가 특별비자 추천서 발급 ※ 사업성·혁신성 중심 평가</p>
<p>벤처투자 활성화</p>	<p>스타트업코리아펀드 2조원 이상 결성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결성</p>	<p>초기창업 분야 출자 확대 ✓ ('24) 800억원 → ('25) 1,000억원</p>

2 급변하는 미래에 선제대응 “새로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”

<p>수출 성장 Engine</p> <p>수출바우처 ✓ 1,275억원 3,500개사 ✓ 최대 3천만원(강소)~1억(강소) *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140억원 400개사</p>	<p>중소기업 Jump-Up</p> <p>점프업 프로그램 신규 ✓ 100개사 ✓ 기업당 3년간 최대 7.5억원</p> <p>혁신형 R&D 촉진 ✓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R&D 배정 ('24) 38% → ('25) 최대 50% ✓ 글로벌 협력 R&D(프라온호퍼 등)</p>	<p>혁신성장형 금융지원</p> <p>소상공인 → 중소기업 성장 금융지원 ✓ 소상공인→소기업(1,700억원) ✓ 소기업→중기업(2,000억원)</p> <p>혁신성장 분야 금융지원 ✓ AI, 차세대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✓ '25년 정책금융의 60% 집중 지원</p>
<p>제조혁신 가속화</p> <p>제조 中企 자동화, 지능화, 자율화 ✓ 2,200억원 1,700개사 ✓ 최대 1.2억원~10억원</p> <p>제조AI센터 활용·확산 ✓ 지역특화 제조AI센터 3곳 신설 ✓ 「(가칭)중소기업 AI 확산법」 제정</p>	<p>인구구조 대응</p> <p>중소기업 고령화 ✓ 「(가칭)기업승계법」 제정 ✓ 외국인재 중소기업 취업 촉진</p> <p>장기근속 촉진 ✓ 우대저축공제 가입자 확대 ※ 기업지원+은행 우대금리</p>	<p>지속가능한 지역경제</p> <p>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 ✓ 모펀드 1조원 신규 조성('25~'27) ✓ 인구활력펀드 0.1조원 신규 조성('25~)</p> <p>기후테크 특화 글로벌 혁신특구 ✓ 5곳 조성('25~'27) ※ 기업지원+은행 우대금리</p>